

20세기 미술양식이 활용된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세기 후반 패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이 경 아

국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박 선 경

· 목 차 ·

- I. 서론
- II. 20세기 미술양식과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 III. 20세기 미술양식이 활용된 20세기 후반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 IV. 결론

I. 서론

현대는 창의적인 감각에 대한 열정과 고도의 첨단 과학 기술이 함께 존중을 받는 시대이다. 인간의 신체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복식이 다양한 양식을 전개하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도 신소재의 영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션 디자인에서 신소재에 대한 열망은 어떠한 라인이나 디테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절실하며 모든 복식조형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 기술은 꾸준히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여 하이터치(high-touch)의 고감도 표현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호응을 받는 감성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복식조형의 요소에 있어 중요한 시대성을 지닌 패션성과 이에 따른 창의성 그리고 독특한 표면 이미지 확립에 있으므로 현대에 있어 부각된 분야이다. 이처럼 현대 패션 산업의 경쟁력 획득은 결국 소재에 있다고 할 정도로 텍스타일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는 의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현대의 의상은 외형적인 기능 이외에도 자기과시와 자기표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조적,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현대 조형 예술과 빈번한 교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식은 신체 를 위한 의복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위한 옷¹⁾으로 사회적 욕구와 열망을 반영하며 그 시대의 미적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복식은 조형예술의 한 영역으로 그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미술사조와 현대 패션의 관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예술과 복식과의 연관성, 예술사조가 의상에 미친 영향 및 영감을 규명한 연구들은²⁾³⁾⁴⁾⁵⁾ 복식을 다양한 예술양식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복식과 예술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고찰하여 복식의 예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술양식이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된 것은 다른 문양의 개발보다 예술적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술과 의상의 공감대를 극대화시킨다. 이렇듯 미술양식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적극적 개발은 패션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은 소재 개발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한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발상 및 전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상디자인에 활력을 주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20세기 미술양식이 현대 패션의 텍스타일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 초, 중반의 미술 양식을 선택하여 그 흐름을 고찰한다.

둘째, 20세기 초, 중반 미술양식에 나타난 각 사조의 조형적 특성을 야수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미술양식의 조형적 특성이 텍스타일 디자인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표현방법을 고찰한다.

넷째, 20세기 초, 중반의 미술사조가 영향을 미친 회화와 20세기 후반 디자이너의 작품 사례를 분석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이 현대 의상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표현방법을 고

1) James Laver, 'Fashion make Social History', In the House of Worth, New York: The Brooklyn Museum, 1962, p.601

2) 문미영, “인도네시아 이kat 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1995.11

3) 이주현, “포스트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1

4) 이인성, “일상적으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와 테크닉에서 살펴본 의상창작과 예술”,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1996.1

5) 이효진,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권, 1997.5

찰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미술사조와 디자이너를 고찰함에 있어 Delong⁶⁾의 관찰(observa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의 4단계를 적용하였고 실증적인 자료는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 선정하였다. 패션에 표현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실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러 패션 잡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참고 자료들은 Collection, Fashion News, Vogue 등의 패션지와 인터넷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미술사조에 영향을 받은 텍스타일을 고찰함에 있어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그 시대 작가의 회화 작품과 비교하여 20세기 후반 텍스타일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 방법을 추출해 내 고자 하였다. 실제의 예를 찾는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오래 된 것은 자료가 미비하여 최근과 가장 가까운 90년대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20세기의 미술양식을 통해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 패션의 개성화를 위한 디자인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20세기 미술양식과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1. 20세기 미술양식의 흐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전의 30년간은 철학, 정치, 사회,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또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영역에서 현재까지도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과거의 '가치'로부터 점진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해방된 각 개인들은 결국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진실만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예술창작에서 이 진실성에 대한 추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미술가들이 야수주의(Fauvism), 입체주의(Cub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오르피즘(Orphism), 절대주의(Suprematism), 추상주의(Abstractionism), 초현실주의(Surrealism)와 같은 현대적 양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처럼 여러 다른 성격의 사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20세기 미술에서 보이는 보편적이고 특이한 양상이기도 하며, 이는 20세기 사회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회화에 있어 20세기 미술은 두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게 되며 그것이 서로 병행하고 또는 교체되면서 전개되어 간다. 이 두가지 흐름에 관해 이일(李逸)은 하나는 '조형에

6) Marlyn R Delong,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Press, 1987, pp.7-13

의 의지'가 앞서는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표현에의 의지'가 지배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조형에의 의지'는 형태의 '구'에 보다 더 깊이 관련지워지고 세잔느에게서 그 본보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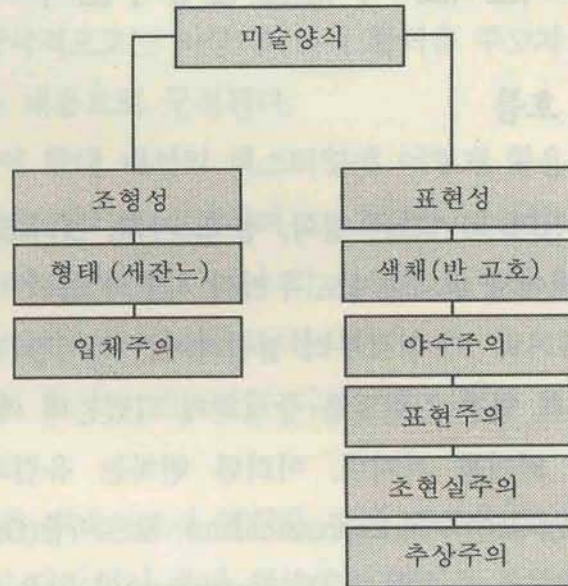
그리고 '표현에의 의지'는 색채와 마티에르의 '표현성'에 보다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선각자적인 화가는 반 고흐이며 야수주의와 표현주의, 추상주의, 초현실주의가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⁷⁾

이와 같이 20세기 미술사조의 '이원성'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 회화 전개의 기본적인 패턴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20세기의 미술 전개의 논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미술 평론가와 미술사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로 화가들도 작업을 통해서 '조형'과 '표현'의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⁸⁾

이상의 조형성과 표현성을 중시한 20세기의 미술양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세기 미술양식의 흐름



또한, 현대 의상은 다양화, 전문화 시대의 추세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위한 산업화에 각 미술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유사한 표현 기법이 재조명됨으로써 독특하고 개성적이며 창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20세기의 미술양식중 조형성을 중요시한 입체주의와 표현성을 중

7) 이일(李逸) 「서양미술의 계보」, 도서출판 API.

8) Ibid.

시한 야수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를 선택하여 각 미술사조의 조형성과 그 표현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텍스타일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분석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2. 20세기의 미술양식과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1) 야수주의(Fauvism)

야수주의는 20세기초(1903-8년경)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89-1954)의 주도 아래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으로 확산된 미술운동이다. 후기 인상주의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영향으로 굵은 붓터치의 독립성과 단순함, 생명력 있는 원색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또한 보색을 사용하여 더욱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대담한 터치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 색채와 표현력을 더욱 생생하게 강조하였고 회화적인 감동이나 열정을 보다 단순하고 생략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작품세계에 표출시켰다.

또한 야수주의는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의 장식적 색면(色面)과 대담하고 화려한 원색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는 라틴 민족의 낙천성이 표현되었다. '색채의 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힘찬 붓터치와 색채의 자율성을 추구하였으며, 과감하게 강렬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감성을 표현했다. 따라서 야수주의자들은 색채는 단지 자연의 재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form), 크기(volume)의 공간마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티스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아카데미즘에 대항하며 인상파 이후의 새로운 시각과 기법을 추진하기 위해 순색을 구사하고 빨강·노랑·초록·파랑 등의 원색을 굵은 필촉을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화면에 펼쳐 대담한 개성의 해방을 시도하였다. 새로운 색의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 때문에 이를테면 공기·수목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사실주의 색채 체계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명암·양감 등도 파괴하였다. 특히 마티스는 색채와 선의 조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그의 단순화된 선감각은 이후의 기하학적 추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 그가 즐겨 사용한 벽지의 문양같은 장식적 모티브는 70년대 쉬포르-쉬르파스(Support-Surface)⁹⁾ 그룹의 패턴과 장식 미술의 원류로 취급될 정도로 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외 이 운동에 관계를 가졌던 화가로는 에밀 프리츠(Emil Fritz), 장 푸이(Jean puy), 반

9) 쉬포르-쉬르파스란 '버팀-표면'이란 뜻으로, 회화에서의 지지체와 화면을 가리킨다. 이들은 캔버스의 나무틀을 떼어버림으로써 기존의 화포(畫布)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었다. 이렇게 틀이 없는 물질로서의 화포를 장대로 받쳐 걸거나, 상위에 펼쳐 놓거나, 직물처럼 접어 개어놓음으로써 회화와 직물 도안과의 구별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동겐(Kees Van Dongen), 조르쥬 브라크(George Braque), 라울 뤼피(Raul Dufy)등이 있다.

2) 텍스타일에 표현된 야수주의의 조형적 특성

① 강렬한 색상대비

야수와 화가들의 회화 작품은 특히 직물의 프린트로 많이 활용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원색에 가까운 순색을 사용하여 색채가 눈부시고, 각 색조간의 직접적인 대비로 화려한 색상 대비가 자주 보이며, 보색의 색채가 인접해 있어서 더욱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뽀 뽀 아레(Paul poiret)를 필두로 하여 야수주의의 강렬한 색채를 의상의 텍스타일에 도입하였는데 인상주의에서 창출된 종전의 흐릿한 파스텔 색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강하고 밝은 원색의 사용과 이들의 대비 효과로써 텍스타일에 있어 색채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다.

② 대담한 데포르마시옹

텍스타일에 있어 소재의 한 부분을 특히 확대한다든가 또는 전체의 형태를 왜곡시킨다든가 하여 자연의 형태에 주관적인 변형을 더함으로써 조형상의 효과를 내려고 시도한 강조의 수법이다.

③ 단순성

야수주의는 화면에서 자연주의적인 수법을 추방한 즉 원근법, 빛과 그림자, 입체적 표현을 배제하고 대신 화면에 표현한 것은 색채와 대상의 윤곽선 뿐이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선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상의 단순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텍스타일에서는 장식을 피한 단순한 선으로써 직선미가 나타나는 매끄러운 곡선과 직선을 사용하여 표현되었다.

④ 오리엔탈리즘

텍스타일에서는 다채로운 색상과 동방의 직물, 일본의 판화, 비잔틴의 모자이크, 페르시아의 미니어처와 스트라이프와 띠, 아라베스크 무늬, 굵은 외각선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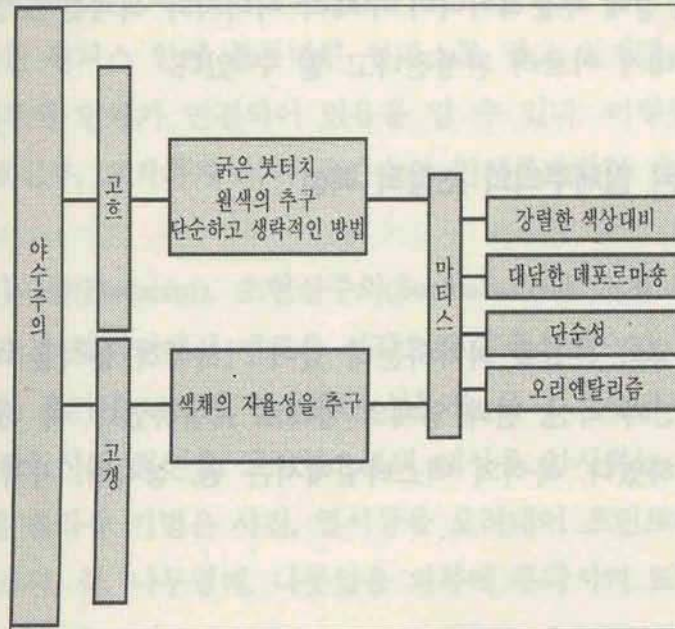
이상으로 야수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입체주의(Cubism)

1907-1914년 파리에서 일어난 20세기 예술 운동의 하나로 3차원의 개념에 시간이 부과된 4차원의 개념이 입체파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4차원의 표현을 취한 입체파의 회화는 시각적이거나 보다는 이지적, 관념적 사상의 예술이다.¹⁰⁾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세잔느풍의 입체주의(1907-9), 분석적 입체주의(1910-12), 종합적 입체주의(1913-14)의 3단계로 나뉘어 발전했다.

10) 존 골딩, 황지우 역, 「큐비즘」 열화당, 1988, p.13

〈표 2〉 야수주의의 조형적 특성



1단계는 세잔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세잔느는 평면의 존재를 자연에서의 깊이와 매스(mass)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원근법의 파괴, 단순화,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고 색채를 통한 공간 관계의 한정등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회화적 공간들이 입체파 예술에 직접적인 영향의 근원이 되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하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관점도 절대적인 관점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상의 내적구성, 즉 대상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려 하였다.

2단계는 분석적 입체주의로 이들은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각 부분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시켜 봄으로써 구조적인 파악이 용이하게 된다는 사실, 즉 입방체, 구, 원통형 등을 사용하여 삼차원적인 감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제작 태도는 묘사보다는 구축적인 형태의 파악에 있었으므로 원형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기하학적 형태로 대응된 것이었다. 그 결과 화면은 수많은 선과 면으로 분해되고, 대상은 잃어 갔지만 대신 조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었다.¹¹⁾

3단계는 종합적 입체주의로 피카소가 정물화에 등나무 의자 형태의 유포(油布)를 부착시킴으로써 플라주의 최초 방식인 파피에 콜레(papier colle)가 시작되었다. 입체파의 양식사중 분석적 입체주의 시대가 대상의 해체에서 출발하였다면 시각적 요소의 첨가로부터 기인되

11) 김진숙, "큐비즘과 르포르뷔제 작품의 관련성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12

는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는 화면 질서의 구축에서 출발하였다.¹²⁾

결과적으로 입체주의의 전개는 대상을 철저히 분석한 시기를 거쳐 분석된 대상, 즉 기본적인 기하학적 화면 구성에 부분적이거나 구체적 이미지와 색채를 도입시켜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는 종합의 시대에 이르러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4) 텍스타일에 표현된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① 기하학적 조형

기하학적 조형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하학적 분석을 이용했으며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버리고 직선과 곡선, 면과 입체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즉 대상을 단순화시켜 기하학적 조형으로 표현하였다. 복식의 텍스타일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② 동시성

동시성(simultaneity)은 대상을 파악하고 분해, 해체하여 재구성하였다. 즉 대상을 해체하여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대상의 해체와 재구성은 시점의 공존을 시각화하였다. 그리하여 입체주의자들은 그들의 도형 방법으로 동시표현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복식의 텍스타일에서는 소재를 해체하여 다른 소재로 표현하거나 해체한 소재와 다른 소재를 결합하여 새로운 소재로 재구성하여 표현된다.

③ 투명성

평탄한 면들이 서로 중첩되었을 때 대상의 윤곽들이 상호침투, 교차하게 되며 이러한 윤곽의 배합은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을 암시한다.



〈그림 1〉 Watanabe, 1997

12)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일지사, 1976, p.60

즉, 여러겹으로 된 의복에서 한 장의 천이 앞에 있고 또 다른 천이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겹쳐진 곳의 뒷부분에도 또 한 장의 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내부와 외부의 상호관입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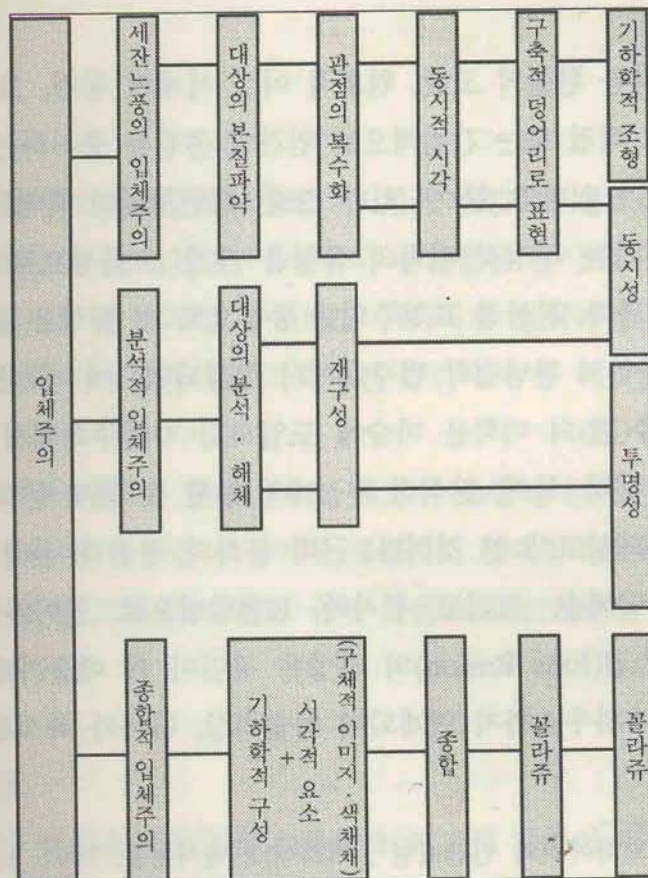
투명한 비닐로 만든 원피스 안에 불투명한 원피스를 입고 있지만 투명한 원피스에 의해 불투명한 원피스 내부에 인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복이 겹쳐져 있어도 그 윤곽들이 상호침투, 교차하게 되어 공간속의 인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그림 1).

④ 폴라주

입체주의에서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를 거쳐 팝아트(Pop-art)에 이르기까지 폴라주는 표현과 형식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표출되었으며 그 양상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입체주의 후기에 나타난 폴라주는 신문지, 문자, 직물조각 등이 구체적 이미지와 색채등을 도입, 종합시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을 암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텍스타일에 표현된 폴라주 기법은 사진, 엽서등을 오려내어 프린트하여 붙인 디자인과 깃털, 금속, 플라스틱 조각, 꽃, 나무열매, 나뭇잎을 의복에 부착시켜 표현한 폴라주룩, 그리고

〈표 3〉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패치워크 기법등이 있다.

이상으로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5) 표현주의(Expressionism)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난 강렬하고 불안한 느낌의 양식으로, 야수주의와 함께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20세기 표현주의는 고흐와 고갱을 그 선구자로 볼 수 있다. 고흐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기법의 특성을 형성하게 하는데, 비록 고흐가 스스로를 인상주의자로 칭하고 인상주의자의 밝은 색채를 이어받아 화폭에 선명한 원색의 선들을 펼쳐놓기도 했지만 그의 감성적, 상징적 특성은 색채를 단지 빛을 표현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적극적인 매체로 이용하였다.

또한 고갱은 상징주의 계열의 화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그림을 단순화, 평면화시켜 비사실적인 색채로 그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

고흐와 고갱에 이어 노르웨이 태생의 뭉크(Edvard Munch, 1863-1944)도 표현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화가이다. 그는 불안, 공포, 증오, 애정과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선명한 감정을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표현해 표현주의자들의 새로운 조형언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원초적 이상 세계의 동경, 그리고 인간의 정신 세계를 그린 표현주의¹³⁾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존립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현주의의 특성은 그로테스크한 신비주의와 맞물려, '추(醜)'라는 부정적 미학의 특성을 가진다. 이상으로 표현주의를 전병관¹⁴⁾이 분류한 직관적, 입체파적, 환상적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직관적 표현주의는 독일의 관념철학 범주내에서 형성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양식이다. 특징은 첫째, 추(醜)의 미학을 미술에 도입하되 자연주의에서 출발한 주관적 변형에 의한 격렬한 표현에 있다. 둘째, 장식적 수공예의 부활 및 중세 문양의 패러디로 이는 수공예를 통해 인간성을 되찾고자 한 것이다. 근대 문화의 정신과 신의 상실을 비난하여 추상적인 중세숭배와 고딕예술, 그리고 원시적 표현방법으로 돌아가라고 역설한 모리스(William Morris)와 러스킨(John Ruskin)의 사상은 장인이 왜 예술가로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바우하우스까지 연계되어 미술의상, 나아가 복식분야가 예술양식의 하

13) 마순자, "표현주의 회화에서의 인간표현",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2, p.25

14) 전병관, 「프랑스 표현주의 회화-1903년~1945년」, 1989

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입체파적 표현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표현주의의 주요 양상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동시의 표현방식을 시도한 것으로 이는 전통에 대한 혁명과 새로운 미의 구현이었다. 둘째, 자연형태의 해체와 재조명을 통해 나타나는 변형과 왜곡으로 이는 현실적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추'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동시에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역동성을 회화에 도입하여 꼴라주 기법으로 나타냈다.

환상적 표현주의는 정신사적 배경을 이루는 신비주의, 자유주의, 실존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첫째,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순수한 자연과 때묻지 않은 과거를 회상하여 그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인해, 원시주의 예술에서 모든 표현의 근원을 찾아가 하였다. 둘째, 성과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여성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성의 해방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셋째, 무미 건조한 현실 사회를 환상적이고 순수한 세계로 우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왜곡되고 기괴한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변용과 전위, 우화성과 유희성, 낙서, 기호등의 형상과 아동화적인 특성들로 표현되었다.

6) 텍스타일에 표현된 표현주의의 조형적인 특성

① 전위적 모티브

i) 왜곡과 강조

텍스타일에 있어 이질적인 소재들과의 부조화, 희극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것들의 혼합, 극단적인 과장,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유발시키는 비정상성 등으로 나타나며 인체의 구조 및 비례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소재로 표현된다. 따라서 확대나 과장은 인체에 대한 왜곡이고 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체의 변형을 의미한다.

ii) 형태의 파괴와 변형

복식의 텍스타일에 있어 형태를 분해시키고 새로이 조합하여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직물을 색감이나 재료에서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불규칙성으로 나타나며 봉제하지 않은 직물을 그대로 몸에 두름으로써 기존의 복식의 텍스타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한다.

② 원시적 경향

i) 자연친화적 경향

자연물의 형태를 인용하거나 패턴으로 사용하고 기교적 가공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한 직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동물 가죽을 대충 엮어 야만적인 원시성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직조가 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며 식물, 자갈, 깃털과 같은 자연물 장식의 에콜로지풍과 기초적인 편물을 응용하여 자연과의 융합, 애니미즘, 토테미즘으로 표현된다.

ii) 토속적 요소의 반영

토속적 요소의 반영은 동양의 신비로움이 표현된 민속복식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지의 원주민 부족 복식 스타일로 나타난다.¹⁵⁾ 기하학적 모티브, 장식적 문양, 지그재그식 띠, 번개무늬, 삼각형, 다양한 형태의 십자무늬 등으로 나타나며 주술적 의미의 상징적 캐릭터가 패턴으로 응용되어 나타난다.

iii) 감성적 고전주의

감성적 고전주의의 표현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표현주의 예술이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 내면의 표현은 정신적인 배경면에서 인간을 존중했던 고대 그리스와 엠파이어 예술양식, 화려하고 낭만적으로 표현되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양식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⁶⁾ 따라서 텍스타일 또한 현란한 색채와 얇고 비치는 직물, 구슬장식, 원시적 문양등으로 나타난다.

iv) 원초적 특성

텍스타일에 있어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패턴, 다채로운 색상과 깃털 장식, 흑백의 대비 등으로 원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③ 이중적 의미

i) 희극적 패러디

주로 성화나 명화의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직물의 패턴으로 응용되는데 이는 명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보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웃음을 짓게한다.

또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는데 이는 비장하면서도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ii) 일상성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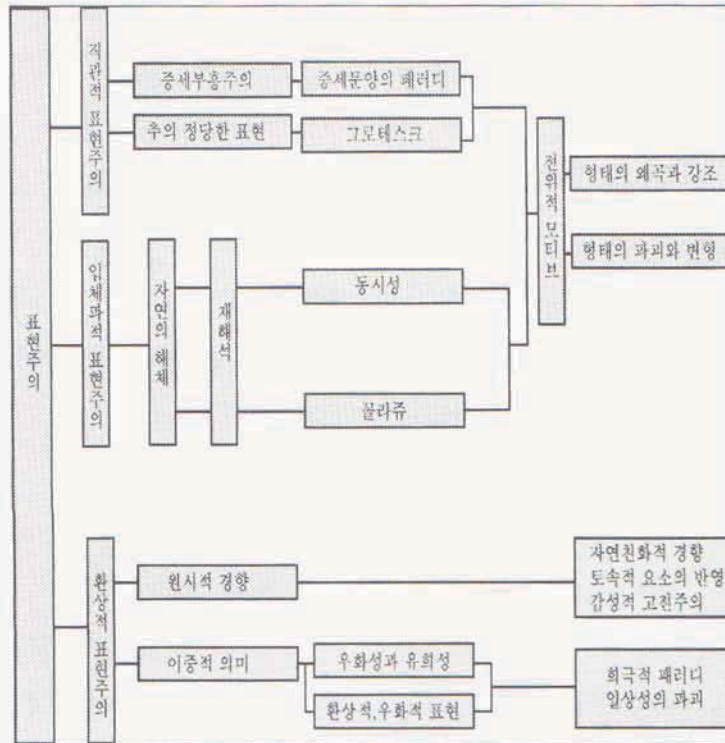
규칙을 파괴함으로써 또다른 유희적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꼴라주 기법을 통한 과장된 텍스타일의 표현이나, 전혀 무관한 이질적인 소재의 일부를 차용함으로써 일상성을 파괴하는데 이는 결국 웃음과 유희를 유발하기 위한 표현주의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표현주의의 조형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15) Adam, L. 「Primitive Art」. 김인환(역), 원시미술, 서울: 동문선, 1990, p.100

16) 윤한정, "표현주의 회화양식의 관점에서 본 현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8.

〈표 4〉 표현주의의 조형적인 특성



7) 초현실주의(Surrealism)

1920-1940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문학, 예술, 정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어났던 운동이다. 기존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정치와 국제적 긴장, 재정적 혼란과 관심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환상적인 것을 원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생겨났다.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양식은 크게 두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Depaysement(전치, 전위) 와 Automatism(자동 기술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현실적 사물들을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내어 낯선 장소에서 조합시키는 Depaysement이 주로 사용된 회화를 사실적 초현실주의라고 하며, 대표적인 화가로 Rene Magritte(1898-1976)와 Salvador Dali(1904-1989)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위치 전환시키는 기법을 이용하여 사진과 같이 사실적이고 정밀한 현상을 표현했다. 즉, 신체부위, 자연물, 일상사물 등의 감각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들을 일상적인 위치가 아닌 이동을 통해 반이성적인 내적 표현을 시도하

며, 기존의 관념들과의 상충을 시도하였다.

둘째,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자연 발생적 자동 기술의 방법인 Automatism으로 표현된 초현실주의 회화를 추상적 초현실주의라고 구분하며 대표적인 화가로는 Max Ernst (1871-1976), Andre Masson(1896-1987)과 Joan Miro(1893-1983)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의식적 드로잉 기법을 이용하여 반의식 상태에서의 강한 내적 충동을 선과 형태로 표현하며 그 위에 채색된 색감을 사용해서 더욱 풍부한 연상 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즉, 자동기술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서예적인 표현, 우연적 요소의 도입등으로 더욱 풍부한 추상적 세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기법으로는 콜라주(Collage), 프로타주(Prottage), 그라타주(Grattage). & 데칼코마니(Decalcomanie), 모래그림(Sand painting) 기법 등이 있다.

8) 텍스타일에 표현된 초현실주의의 조형적인 특성

① 신체 부위의 응용

이중적 의미로서의 눈, 관능적인 심볼로서의 입술,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표현으로서의 가슴, 그리고 사람얼굴 등과 같은 신체의 각 부위가 독립되어 복식의 텍스타일에 표현되었다.

② 자연물의 응용

자연의 소재가 복식의 텍스타일로 이동하여 표현되는 기법으로 주로 해양생물(물고기, 조개, 가재등)과 새, 나무, 꽃, 나비 등으로 자연물의 속성과 여성을 동일시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기법이다. 또한 초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의 세계를 떠나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였다.

③ 사물의 은유와 변형

복식의 텍스타일과 관계가 적은 일상 용품들(악기, 컵, 시계, 의자, 옷장서랍, 가위, 열쇠 등)이 복식 위에 배열되어 우연성을 시도하는 기법이다. Man Ray의 "Le Violin d'Ingres"에서 여성은 음악적 기구로 은유하였는데 이 개념을 스키아파렐리는 음표가 자수된 드레스로 표현하였다.

④ 위치의 변경과 착시

의복의 앞, 뒤가 바뀌거나 속옷이 겉옷으로 표현되어 복식의 품목 자체가 이동하고 하나의 이미지가 이중적 기능을 하도록 시각적 착시를 이용하여 환영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스키아파렐리는 달리와 함께 Tear Illusion Dress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찢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착시효과를 나타낸 텍스타일 디자인이다.

⑤ 콜라쥬(Collage)

화면위에 사진, 오려낸 종이, 잡다한 object 등 이질적인 재료들을 우연의 법칙에 의해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입체파의 콜라쥬가 현실적 대상을 붙여나가는 반면에 초현실주의의 콜라쥬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이질적 대상을 우연,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는 방법이다.

M.Ernst가 콜라쥬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 <Celebes의 코끼리>는 동물의 묘사에 있어 반은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고 반은 기계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 이는 어린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두고서 환각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콜라쥬 기법은 현대 텍스타일에 다양하고 풍부한 창조성을 불어 넣었으며 이러한 콜라쥬 기법을 구사한 의상들은 기괴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재치와 유머를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⑥ 프로타쥬(Frottage)

연필이나 크레용을 나뭇잎, 돌, 마포, 딱딱하게 굳은 빵껍질, 밀짚모자 등 질감이 있거나 부조된 표면위에 종이를 대고 문질러 아래의 음화를 옮기는 기법이다. 복식의 텍스타일에서는 나뭇잎이나 다른 자연의 형태로 표현되어 우연적 효과를 나타내며 이것은 다시 재조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표현된다.

⑦ 그라타쥬(Grattage) & 데칼코마니(Decalcoma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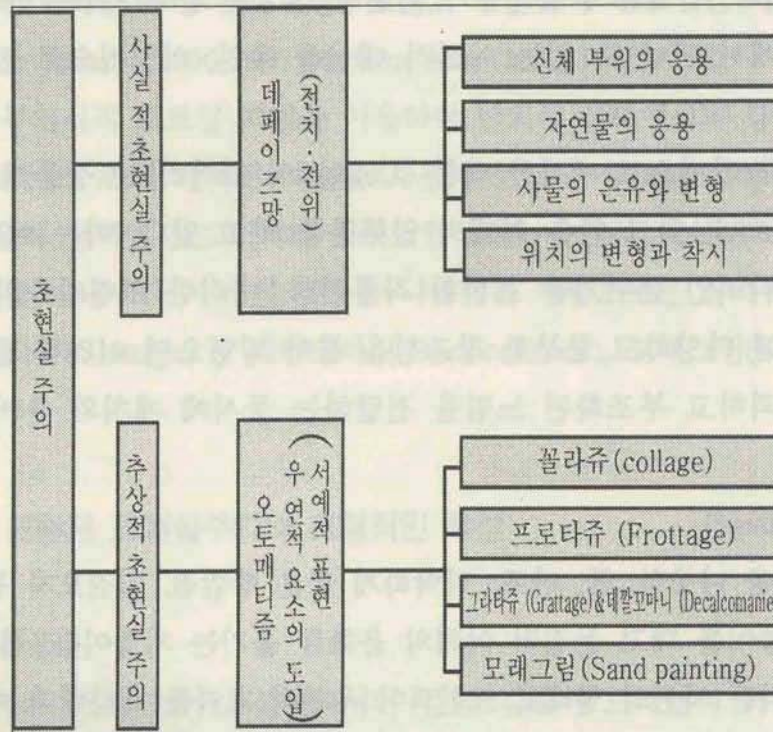
Grattage 기법은 두겹게 칠한 화면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빗, 포크, 펜, 면도칼, 유리조각, 바늘 등으로 긁어서 독특한 영상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Decalcomanie 기법은 잉크 자국이나 짜뭉게진 물감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흰종이를 펴 놓고 그 위에 물을 탄 검은 잉크를 펴서 바른 다음, 이 종이 위에 또 다른 종이를 덮고 손으로 표면을 누르면서 힘을 달리하여 미묘함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⑧ 모래그림(Sand painting)

모래그림은 Andre Masson이 1927년에 모래를 이용한 자동기술적인 드로잉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무의식에 기반한 드로잉 기법으로 모래그림을 그렸는데, 현대 의상의 텍스타일에서는 옷감 표면에 모래와 같은 유사한 가루를 뿌려 추상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으로 표현된다.

이상으로 초현실주의의 조형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초현실주의의 조형적인 특성



9) 추상주의(Abstractionism)

추상주의는 넓은 의미로는 대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 입장의 예술양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1910년 유럽 각지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활발히 전개되었다. 현대 미술에서 인상주의에 반발하며 색채, 형태 등에서 전통적인 회화 관념을 거부하는 추상미술은 몬드리안을 시조로 하는 ‘기하학적 추상’ 과 칸딘스키를 시조로 하는 ‘서정적 추상’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은 선과 색채의 엄격한 구성에 의한 조형의 원리를 탐구하고 구성적, 지적, 신비주의적, 금욕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흔히 이를 차가운 추상이라고 한다. 몬드리안은 신지식학에 바탕을 둔 철학과 종교적 감정을 내포한 추상적 작품세계를 추구하였다. 형태의 표현은 수평선, 수직선이라는 이원적 원리에 의해 자연 질서의 근본 성격을 표현하였다. 또한 색채에 있어서도 입체주의의 영향으로 적, 청, 황의 삼원색과 흑색, 백색, 회색, 무채색과 균형있는 반대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칸딘스키의 서정적 추상은 색채나 형태에 내면적인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본능적, 표현적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를 뜨거운 추상이라고 한다. 칸딘스키에 있어 예술의 대상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었고 자연이 가지는 이념적 형태와 색채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순

수함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칸딘스키가 필요로 하였던 것은 내적 표현성이었으며, 이 내적 표현성이 그의 작품과 예술적 이념에 바탕을 이루는 기본 사상이었다. 그에게 있어 형은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써 그는 점을 수많은 형태의 근본적인 요소로, 선은 움직이는 점의 궤적으로, 면은 작품의 내용을 담는 물질적인 면으로 규정했다. 칸딘스키는 또 대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조형요소로서 색의 순수성과 자립성을 추구하고 색채를 빨강, 노랑, 보라, 주황, 초록, 흰색, 검정의 8색으로 구분하여 각 색채의 정신적 특성을 강조하였다.¹⁷⁾

10) 텍스타일에 표현된 추상주의의 조형적인 특성

1) 형

① 점

점은 의상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직물의 문양으로 자주 사용된다. 점은 크기를 가지지만 그 크기만으로는 점이 이루지지 않으며 그것과 관련하는 다른 형과의 관계로 정해진다. 또한 점은 그 자체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도 질감을 느낄 수 있다(그림 2). 가장 작은 요소라는 제한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점이 그 유형에 따라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색채를 띄기 때문이다.



〈그림 2〉 점

② 선

의상 디자인에서 선은 외양 전체를 지배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동시에 문양으로 사용될 때 굵기나 길이에 따라 인상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칸딘스키는 선은 ‘점의 운동으로 생기는 동적인 것’ 이라고 정의했으며, 그 자체만으로 층

17) 「점, 선, 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차희봉 역, 1971.

분히 운동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이 변하는 내면 세계를 표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모던 아트(modern art)에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선들은 현대 의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 선에 대한 개념은 현대 의상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 i) 수직선: 무한하고 따뜻한 움직임을 주는 선으로 의지의 상징이자 남성이며, 동적이고 진보적 요소이다.
- ii) 수평선: 차가움과 평탄한 느낌을 주는 선으로 몬드리안의 수평선은 휴식의 상징이자 여성이며, 정적이고 보존적이며 정신적 기쁨을 나타낸다.

③ 면

의상에서의 면은 실루엣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의상의 표면선과 외계와의 접촉면을 나타낸다. 실루엣은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임을 가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변화된다. 즉 전면에서 서있는 사람과, 측면에서 서있는 사람의 실루엣은 전혀 다른 형태이며 각 개인의 체형에 따라 또는 의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면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고유한 형태로 문양에 이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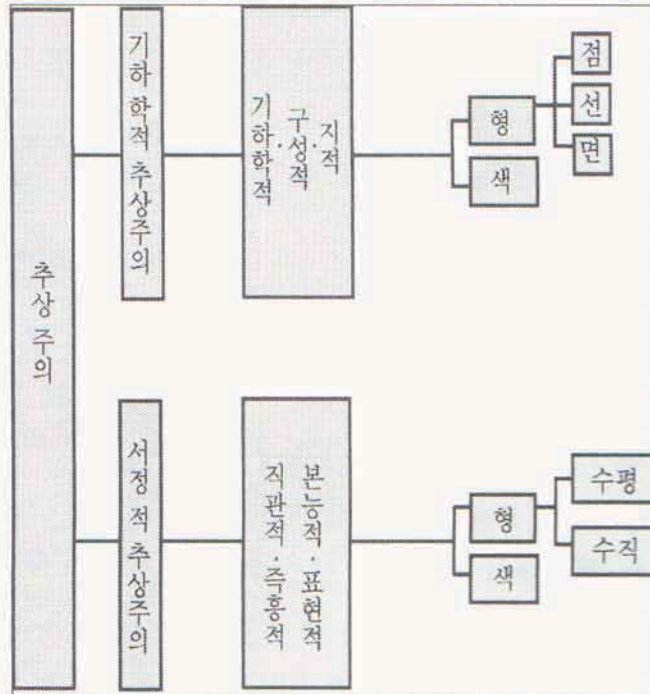
2) 색

현대 의상의 텍스타일 디자인에서는 추상회화에 나타나는 강렬한 색채를 여러 가지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체의 약점을 감추거나 보완하기 위해, 또 신체의 일부를 확대시키거나 축소하기 위해 색의 착시 효과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즉, 밝은 색은 전진적이고 크게 보이는 반면, 어두운 색은 후퇴적이고 작게 보인다는 색채학의 일반적 이론에서의 착시효과가 칸딘스키의 색채이론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칸딘스키의 회화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부분 배치된 기호학적인 형태와의 결합은 소재의 문양으로도 자주 활용되며 점, 직선, 사선, 파상선, 원, 삼각형, 사각형들이 색채를 달리하여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공간에 배치되어 면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몬드리안의 구성에서 보여지는 색채들의 기하학적인 배열이나 강렬한 3원색의 동시 사용, 순색의 평면위에 단순한 색면 배치 기법등도 현대 의상의 텍스타일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상으로 추상주의의 조형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추상주의의 조형적인 특성



Ⅲ. 20세기 미술양식이 활용된 20세기 후반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1. 현대 패션의 경향

「현대 패션 모드」에서는 현대 패션의 경향을 기능주의적 경향과 표현주의적 경향의 두 흐름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능주의적 경향의 디자이너와 표현주의적 경향의 디자이너로 분류하였다.¹⁸⁾ 기능주의적 경향의 디자이너들의 작품 성향은 순수하고 기초 개념으로 돌아가서 장식과 디테일이 제거된 최소화된 복식을 추구한다. 예컨대 아르마니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행이 돌변하는 가운데서도 단순하고 고전적인 수트, 한결 같은 색상과 스타일로 패션계에 군림하고 있다.

표현주의적 경향의 디자이너들의 작품 성향은 의외성, 낭만성, 복합성이 돋보이고 기능성 보다는 복식이 갖는 개성과 상징성 그리고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개성과 독창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미술양식이 미

18)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6

치는 영향이 크므로 표현적 성향이 강한 20세기 후반의 디자이너 중 베르사체, 장 폴 고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파코라반,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을 선정하여 야수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의 조형성이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텍스타일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표현 방법을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미술양식이 활용된 20세기 후반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회화와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① 야수주의의 경향이 나타난 텍스타일의 조형적 분석

i) 강렬한 색상 대비

〈그림 3〉은 야수파 화가인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의 작품으로 화려한 색상 대비가 보이며,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의 선명하고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강렬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베르사체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텍스타일은 이러한 야수주의의 특성을 응용한 것으로 원색의 화려한 색상과 형태의 장식성, 추상성등이 표현되었으며 하의의 바지에서는 검정과 흰색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선명한 콘트라스트를 이루면서 야수주의의 외적 조형 특성과의 유사성을 나타내준다.〈그림 4〉



〈그림 3〉 로베르들로네, 자화상,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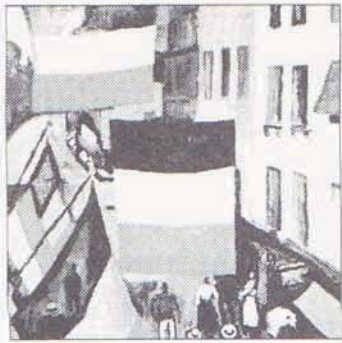
〈그림 4〉 베르사체, 93 S/S

ii) 구도의 대담한 데포르마시옹

〈그림 5〉는 야수주의의 화가 라울 뒤피(Raoul Dufy)의 작품으로 흰색의 벽과 길의 명암을 분명히 하고 원근법을 무시한 채 삼색기를 중심에다 배치하고 그 깃발을 통해 비치는 인물과 펼쳐이는 깃발을 동시에 묘사하는 대담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¹⁹⁾ 즉 구도의 대담한 데

19) 이은덕, "야수주의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1

포르마시옹과 색채로서 야수주의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세이 미야케의 복식에 나타나는 텍스타일에서도 야수주의의 대담한 원색의 색상과 구성을 복식의 텍스타일에 도입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그림 6〉



〈그림 5〉 뒤피, 깃발로 장식된 7월 4일의 르아브르 거리



〈그림 6〉 이세이 미야케, 00 F/W

iii) 오리엔탈리즘

〈그림 7〉은 야수주의 화가 마티스의 작품으로 굵은 붓터치로 검은색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오리엔탈적인 장식적인 선과 곡선적인 리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거리감은 부정되고 모두 동일한 평면위에 놓여있다. 이러한 것은 야수주의의 성격을 드러내는 조형적 특성이며 파코라반의 의상에 나타난 텍스타일 디자인 또한 굵은 붓터치감과 오리엔탈적인 곡선으로 야수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그림 7〉 마티스, Still Life with Blue Tablecloth, 1908-09



〈그림 8〉 파코라반, 00 S/S

② 입체주의의 경향이 나타난 텍스타일의 조형적 분석

i) 동시성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동시성 개념은 한 장의 캔버스 위에 많은 시점들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으로서 입체주의자들은 대상을 해체해서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그림 9〉에서 옆얼굴과 정면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장 폴 고티에의 의복에서도 바지에 같은 프린트를 한번 더 넣음으로써 바지를 두 개 입은 듯한 동시성을 볼 수 있다〈그림 10〉. 이는 시점의 복수화 또는 2차원적 구성에서 3차원적 구성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아비뇰의 처녀들〉 피카소, 1907



〈그림 10〉 장 폴 고티에, 97 S/S

ii) 플라주

입체주의 후기에 사용된 플라주는 신문지, 문자, 직물조각 등이 구체적 이미지와 색채등을 도입, 종합시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을 암시하는 기법이다.



〈그림 11〉 브라크, 기타와 클라리넷, 1918



〈그림 12〉 파코라반, 00 S/S

브라크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종이, 판지 등을 오려 붙이고 그 재질감을 살리면서 공간감을 나타내 더욱 풍부한 조형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1〉

이는 대상과 이미지와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근대 일

루전 미학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한 기법으로²⁰⁾ 의상에서 표현된 꼴라쥬 기법은 벽지, 사진, 삽화등을 오려내어 프린트하여 붙인 디자인과 꽃, 나무, 열매, 나뭇잎, 금속, 플라스틱 등을 옷에 덧붙여 표현한 꼴라쥬룩, 패치워크 기법등이 있다. 파코라반은 꽃모양의 조각들을 그물 원피스에 부착시킴으로써 꼴라쥬룩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꽃모양의 조각들은 움직임에 따라 울동적으로 보이며, 조각들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그림 12).

iii) 투명성

투명함은 공간적으로 분명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것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지 확실치가 않다. 공간적 패턴은 시각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가변적 시각에 부응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은 하나가 앞에 있고 또 다른 것이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²¹⁾ 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사람이 각 형태를 보기에 따라 가깝게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는 모호한 의미를 갖는다.²²⁾



〈그림 13〉 피카소 게르니카, 1911



〈그림 14〉 베르사체, 95 S/S

입체주의의 들어가고 나오고 한 평탄한 면은 서로 침투하고 섞여 있으며, 때로는 투명해서 이것을 사실적인 위치에 고착시키는 것은 거의 없으며 원근법의 단일 초점에 집중되는 선과는 기본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²³⁾ 그래서 여기에는 대상을 많은 투명한 판으로 평판화, 중복시켜 입체를 다면적으로 단편화하고 이 단편화된 대상을 재조립 함에 있어 대상의 윤곽들이 상호침투, 교차하게 된다(그림 13).

베르사체의 〈그림 14〉는 허리와 다리 부분은 투명한 소재를 이용하고 탑은 불투명한 소

20) 정준모, "꼴라쥬 기법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85

21) 김소희, "현대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96

22) G.Kepes, 유한태 역, 시각언어, 대광서림, 1990, p.77

23) S.Giedion, p.137

재를 이용하였다. 또한 힙과 무릎 부분도 러플의 중복으로 반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투명함과 불투명함의 중첩으로 면이 형성되고 있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관입과 면과 면의 상호 침투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간적 의미에서의 시·공 개념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③ 표현주의의 경향이 나타난 텍스타일의 조형적 분석

i) 이중적 의미(희극적 패러디)

표현주의의 특징인 성화나 명화의 내용을 희극적으로 패러디 한 것으로〈그림 15〉은 피카소가 로코코의 화가인 벨라스케즈의 그림을 패러디한 것으로 원작과는 화면의 규격이나, 내용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표현된 텍스타일도 화가 Frans Hals(1582-1666)의 명화의 한 장면에서 어린이의 얼굴만 풍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유희성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그림 16〉. 이렇듯 명화, 종교적 주제, 전통적 양식 등을 유희적으로 해석, 표현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딱딱한 원칙을 탈피하고 어려운 현실을 잊고자 하는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라 파악된다.



〈그림 15〉 피카소, 궁녀들(벨라스케즈에 의한), 1957



〈그림 16〉 비비안 웨스트우드, 91 F/W

ii) 전위적 모티브

표현주의 회화 작품들은 그대로 직물 디자인으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클레, 뭉크, 칸딘스키 등과 같은 작가의 작품이 직물의 문양에 그대로 나타나거나 유사한 분위기의 추상적 문양으로 전개되고 애용되었다.²⁴⁾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는 강렬한 색의 대비, 힘있는 선의 강조를 통해 고뇌하는 비명을 파도 소리와 같은 선의 움직임으로 표현했으며, 인물과 풍경은 선과 색의 울

24) <http://www.sfi.co.kr>



〈그림 17〉 뭉크, 절규, 1895-1897



〈그림 18〉 베르사체, 91 S/S

동적인 움직임으로 묘사되어 있다.〈그림 17〉 베르사체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텍스타일에도 강렬한 색의 대비와 율동적인 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표현주의의 영향이라 분석된다.〈그림 18〉

iii) 그로테스크(형태의 파괴와 변형)

표현주의 양식이 그 시대의 예술사조를 이끌었던 1920년대에 개혁의상으로 나타난 밀리터리 룩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훌륭한 디자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적인 성격과 표현성은 현대의상 디자인의 요구와 잘 부합하여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현대복식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은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복의 전통미에서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여성들에게 복식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한 힘을 전달하였고 나아가 반체제적인 저항과 도전에 근거한 반패션주의적 경향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전후 스타일답게 기괴한 추의 속성을 지니고 시대의 우울함을 표현하는 현실 도피적인 복식으로 변모되어 여성복의 혁신을 이루었다.²⁵⁾ 〈그림 19〉은 오스카 코코슈카(Oskar Kokoschka)의 그로테스크(기괴성)한 그림으로 공포, 파괴 등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경향과 장 폴



〈그림 19〉 오스카 코코슈카, 폭풍속의 신부, 1914



〈그림 20〉 장 폴 고티에, 98 S/S

고티에의 의상에 나타난 밀리터리 텍스타일은 표현주의에 나타난 복식의 변형과 왜곡이라는 조형기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그림 20>

④ 초현실주의의 경향이 나타난 텍스타일의 조형적 분석

i) 신체 부위의 응용

<그림 21>는 신체 부위중 항상 가려져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감추어진 부분을 드러내어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의 기법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신체중에서 가슴이다. 이러한 그림은 특히 Magritte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는 걸려있는 옷에 가슴을 그려놓거나 구두의 표면에 발가락을 그려 놓기도 하였다.



<그림 21> 르네 마그리트, <Philosophy in the Boudoi> 1947

<그림 22> 장 폴 고티에, 93 S/S

장 폴 고티에는 가슴 부분만을 형을 뜬후 그대로 그 위치에 입혀 투명한 소재와 조화시킨 원피스를 선보였는데 그의 가슴을 상징화한 복식의 텍스타일은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그림 22>.

ii) 자연물의 응용

초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의 세계를 떠나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였는데 주로 식물의 소재로는 나무가 선호되었다. 이는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무의 다산능력이 여성의 상징이라고 여겼으며, 나무들이 있는 숲은 불길한 어둠과 불확실성을 제공한다하여 초현실주의자들이 선호한 소재이다. 이러한 나무는 초현실주의 작가인 Maurice Tabard의 "The Walking Tree"에서 나무와 여성이 환상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되었고

25) Ibid.

〈그림 23〉, 현대의 패션디자이너중 파코라반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하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와 상의는 나무 줄기로 장식한 드레스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것은 초현실주의의 복식의 자연 오브제화 기법을 반영한 작품이다.〈그림 24〉



〈그림 23〉 Maurice Tabard, The Walking Tree,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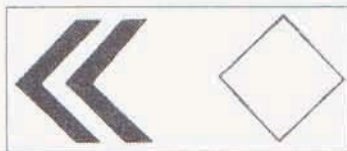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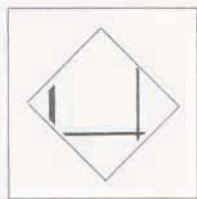


〈그림 24〉 파코라반, 93 S/S

⑤ 추상주의의 경향이 나타난 텍스타일의 조형적 분석

i) 형

〈그림 27〉의 파코라반의 의상에서 보여지는 마름모꼴의 선은 몬드리안의 마름모꼴 형상을 응용한 디자인으로〈그림 25〉, 절제된 실루엣에 예각의 각진 선들은 서로 반복되어 면적인 요소를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으며〈그림 26〉, 또한 무채색의 블랙과 화이트의 반복으로



〈그림 25〉 몬드리안, Lozenge Composition with Three Black Lines,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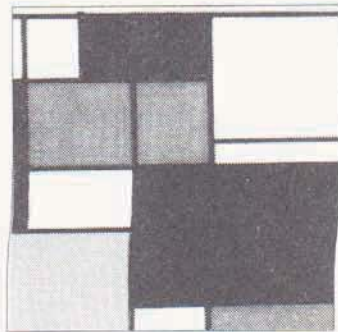
〈그림 27〉 파코라반, 97 S/S

〈그림 26〉 점, 선, 면-칸딘스키의 예술론 II

차갑고 이지적인 느낌을 준다.

ii) 색

몬드리안의 작품 「구성」(그림 28)을 응용하여 나타난 베르사체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문양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형태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9). 또한 이는 수평선과 수직선의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면을 분할하고 색채와 선의 복합적 배열을 통해 면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몬드리안은 고희의 표현적 색채와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아 색채의 표현을 삼원색(적, 청, 황)과 무채색(검정, 흰색)을 이용하였지만 베르사체는 이를 핑크, 하늘색, 보라색, 흰색등으로 표현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응용하였다.



〈그림 28〉 몬드리안, 구성



〈그림 29〉 베르사체, 93 S/S

IV. 결론

미술양식의 다양한 조형적 기법에 따라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20세기 미술사조와 현대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분석, 고찰해 보았다.

현대 패션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근원을 미술 양식에 두고, 특히 미술의 많은 '이즘' 들의 각 양식에서 디자이너들의 텍스타일 디자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디자인 영감의 근원과 오리지널리티의 발상기법이 무엇인지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간 추론되었던 패션과 미술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패션의 흐름과 미술사조의 문헌자료와 작품을 통해 분석하고 추론한 결과로써, 미술양식이 패션에 미친 영향이 지대 하였음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일」²⁶⁾의 분류에 따라 20세기 미술사조중 조형성을 중요시한 입체주의와 표현성을 중요시한 야수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 초현실주의의 미술사조를 조형성과

26) 미술평론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그 표현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텍스타일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방법과 디자인 발상의 근원을 그 시대의 회화와 현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 통해서 비교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야수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색상 대비와 단순성, 오리엔탈리즘

둘째,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기하학적 조형과 동시성, 투명성, 폴라쥬

셋째, 표현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형태의 왜곡과 강조, 자연 친화적 경향, 우호성과 유희성, 그로테스크

넷째, 초현실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데페이즈망(신체 부위의 응용, 자연물의 응용,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의 변형과 착시)와 오토메티즘(폴라쥬, 프로타쥬, 그라타쥬, 데칼코마니, 모래그림)

다섯째, 추상주의의 조형적 특성인 형(점, 선, 면, 수평, 수직)과 색 등의 각 미술양식의 조형적 특성은 현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들에서도 응용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세기 미술양식은 패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가운데 그 창의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각 미술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는 20세기 후반의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공통된 표현 기법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현대 패션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적 근거를 미술 양식에서 가장 풍부하게 찾을 수 있리라 생각한다. (접수: 2001년 8월 31일)

【참고문헌】

- 디자인론, 허버트 리이드 저, 정시화 역
 Fashion memoir Vivienne Westwood, gene krell
 Dufy, 컬러문고, 서문당
 현대패션모드, 정삼호, 교문사
 서양미술사, 고프리치, 열화당
 점, 선, 면 칸딘스키의 예술론Ⅱ, 열화당
 초현실주의 미술, S. 알렉산드리안/ 이대일
 20세기의 미술, 노버트 린튼저, 윤난지역, 도서출판 예경
 모던디자인 비평, 김민수 지음, 안그래픽스
 패션디자인 발상, 이경희 외 지음, 교문사

- 이선화, 20세기 전반기의 회화를 활용한 현대 의상,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혜정,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유한정, 야수주의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김혜정,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유한정, 야수주의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곽보운, 지아니 베르사체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지연,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희, 부조적인 질감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소연, 플라쥬 기법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임영미, 현대의상에 응용된 추상회화의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이해영, 칸딘스키 추상회화가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 대전대학교
주명희,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파코라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인 디자인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김명주 · 김문숙,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Vol.18, No.4, 1994
곽미영 · 정홍숙,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A Study on the Fashion Textile Design Utilizing the Artistic Styles of the 20th Century —Focused on the Works of the late 20th Century Fashion Designers—

Dept. of Graduate Fashion Design, Kookmin Univ. Kyung-a L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 Sun-Kyung Park

The present study looked into the way in which various plastic techniques in the artistic styles have been applied to the fashion textile design,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20th century artistic trends and the works of modern designers. Assuming that the source of originality in the modern fashion design was the contemporary artistic styles,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ach style of so many '-isms' in art on the textile design, and to clarify the source of inspiration in the fashion design and the conceiving techniques of its originality.

Based on the theories that have reas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fashion,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about the trends of both fashion and art and analyzed the relevant works of each tren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and the reasoning demonstrated that the artistic trends had enormous influence on the fashion design.

Recently, the tendency of showing creativity and uniqueness of fashion design by creating the characteristic patterns and fabrics, which were introduced from the artistic styles, has been noticeable among the modern fashion designers. Almost all the possible attempts have been tried in terms of silhouettes and details as much as nothing new could be created any more. Therefore, originality can be expressed only by the new methods of combining them. However, textile design has a characteristic capability of various expressions, thus the possibility of creation and its scope are very broad.

Textile design has a limitless possibility in terms of the methods of expression, such as: (1) a two-dimensional planar method of expression, in which the traits of the genuine paintings were reflected; (2) a three-dimensional cubical expression using various *objets*; and (3) the non-fabric, which is a special materia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20th century artistic styles in the plasticity and in the method of expression. In order to see how these artistic styles have been expressed in the textile design, the method of design and its source of idea were compared and considered by analyzing the paintings of the times and the works of modern fashion design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lastic characteristics of each artistic style had been applied to the works of modern fashion designers and had been expressed in the diverse and creative textile design. Among the elements that affect the field of fashion design, creativity gets

the greatest influence by the artistic styles. The plastic forms and colors appeared in the artistic styles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fashion, and the common techniques tend to be used in both field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basis of the unique and original creation of the modern fashion could be found in the artistic styles most abundantly.

◆ Keywords: Textile Design, The Artistic Styles of the 20th Century